

Enter the Password: 비번이란 무엇인가

-HGSU의 쓰레기 봉투

최초의 비존재는 생성된 모든 것을 절멸시킬 것이다. '사유의 삶: 의지 편'-한나 아렌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느니라.-'고린도 전서 13:5'

어쩌면 우리는 '항당무계하게 보일 물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 시점의 사람들은 더 '계몽' 되고 싶어 한다고 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깨닫고 더 알게 되며 스스로 정보를 찾으며 환영들을 물리치고 그로인해 적극적으로-다시 말해 정치적으로-인생을 주도해나간다는 강렬한 실존적 느낌을 가지고자 한다. 이러한 느낌은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불가피한 부분일 것이며 벗어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고방식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에게 없는 결여된 것을 찾는 사멸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에서 이러한 마취제나 각성제와 같은 마음가짐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 결과 우리는 컴퓨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뜨는 창인 Enter the Pass word: 라는 문구에 매혹 되곤 한다. 마치 실제 세계에서 이것이나 저것을 알게 된다면, 장막 너머의 감춰진 무언가를 보고 듣게 된다면 세상의 음모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리라는 짜릿한 오버도즈의 관음증을 가진 채로 말이다. 어쩔 수 없이 '진리의 기둥이 부숴졌다는' 계몽에 대한 계몽은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아마추어인 우리는 기존 제도권이라는 복잡한 블랙박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 문법과 네트워크를 모른체로 무언가를 알게 되면 거기에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궁리

하곤 한다.

그러나 왜 우리가 제도권의 비평의 문법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다면 제도권 외의 비평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여기에서 미셸 푸코의 강의를 「비판이란 무엇인가」에 기반을 뒤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그가 말하는 ‘비판’,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은 ‘감히 알고자 하라’라는 격언으로 축소될 수 있는바, ‘더는 이런 식으로 통치 받고자 하지 않음’이다. 한편, 또 다른 철학자 칼 야스퍼스에 의하면 칸트 저작의 기초적 질문들은 고대 회의주의자 피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칸트의 세 가지 질문인-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할 수 있는가?¹⁾-는 피론의-세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태도를 취할 경우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생겨나오는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푸코에 따르면 「계몽이란 무엇인가?」는 칸트의 다른 역사철학저작들과 다르다. (...) 이는 역사의 기원도, 종말도, 완성도, 목적도, 즉 역사에 관한 어떠한 초형적 문제도 묻지 않고 다만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물으며 그러한 것으로서 칸트의 역사철학, 나아가 사상 전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²⁾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사건으로서, 철학적 사건으로서의 현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계몽’이라는 물음을 현재성에 대한 물음, 즉 현재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인가의 물음이라고 보고 이것을 근대 특유의 물음으로 적극 평가한다.”³⁾ “이러한 현재성의 철학은 특이한 현재 속의 특이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이 그 현재의 우리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인 것이다.”⁴⁾

“현재성의 물음을 탐구하는 철학의 종별적 형태는 무엇일까?
(...) 철학의 적극적인 의미가 “진단의 활동”이다. (...) 이제
니체와 더불어 철학자는 ‘사유상태를 진단’ 하는 자가 된다
.”⁵⁾ 다시 말해서 비평(비판)이란 ‘현재’의 문제를 하나의 사유
실험으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 실험을 하려
면 자유로운 태도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바, 아마추
어들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일시적이나 항구적으로 제도권에서 추
방되고 박탈된 자들-즉 불분명하게도 파리아(pariah)적 정체
성과 동화된 파브뉴(parvenir)의 정체성사이에서 왔다갔다 하
는-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는 **시기심(Envy)**에 근거한 비판적
독해 방법일 수 도 있다.

「새로운 클라인 정신분석 사전」을 참고하자면 “멜라니 클라인
의 「아동정신분석」에 따르면 시기심은 그러한 파괴적 환상들
이 초기의 지식애적 충동과 연결되어있다고 기술한다. 또한
이는 시기심이 구순사디즘적이고 삶의 초기에서부터 작용하는
파괴적 충동자극의 사디즘적 표현이다...”⁶⁾ 또한 “「제2의 사
고」에서 윌프레드 비온의 견해에 따르면 시기심은 정신 속의
모든 종류의 창조적 연결에 대한 공격으로 근본적으로 표출되
고 (...) 사고 과정 그자체가 공격받고 파편화된다.”⁷⁾-현대적
관점에서-“클라인의 통찰로부터 힘들게 얻은 임상적 이해 중
하나는 몇몇 환자의 경우 시기심은 개인 자신과, 분석가를 포
함한 그의 대상들에 대해 극히 파괴적이라는 것이다.”⁸⁾ 제도
에 대한 시기심은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큰 의미에서의
연대성마저도-을 파괴하며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의 평가절하나 시기심에 근거한 다양한 방어기제가 아닌 방식으로서의 잡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위의 질문들로 출발한 우리의 잡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새로운 기회, 새롭게 관계 맺을 기회를 호더(Hoarder)들의 '수집'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시기심이 우리의 애정을 덮더라도...**

이 잡지는 그러한 맥락에서 모종의 이유로 공모전에 내지 못했거나, 공모전에서 탈락 된 다양한 종류의 실패들과 쓰레기, 잡동사니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배치해,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고, 실패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기분들을 표현해내는 담론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이 기획은 제도권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특성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리서치의 성격도 존재한다. 시, 산문, 비평, 소설, 지원서 등이 14명의 저자들을 통해 이 잡지에 모였다.

※이우리님의 교정과 피드백,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 1) 「세계관의 심리학」 510 각주 169
 - 2) 「칸트와 푸코 비판, 계몽, 주체의 재구성」, 윤영광, 북콤마, 2025 238
 - 3) 「푸코와 철학자들」 김은주 진태원 엮음 민음사 56
 - 4) 「칸트와 푸코 비판, 계몽, 주체의 재구성」, 윤영광, 북콤마, 2025 249
 - 5) 「푸코와 철학자들」 김은주 진태원 엮음 민음사 57-58
 - 6) 「새로운 클라인 정신분석 사전」 169
 - 7) 위의 책 182
 - 8) 위의 책 192